

현대 문명의 운명과
라인홀드 니버의 문명론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 윤리학

- I. 서론: 문제 제기
- II. 문명과 권력
- III. 문명과 인간
- IV. 문명과 기독교 공동체
- V. 결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윤리

〈한글 초록〉

현재 인류가 겪는 코로나19의 문제는 문명의 위기와 다름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일까?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놓고 세계는 새로운 냉전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민족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과학은 증상주의와 결탁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백신의 개발은 ‘약의 세계화’를 기치로 인간의 생명을 약값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구 곳곳에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전전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해상에서 방황하는 난민들 그리고 끊임없는 국경충돌과 종교 분쟁의 사안들이 넘쳐나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상황이 제기하는 문제를 문명론의 차원에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신학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니버는 1,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보았으며, 디트로이트에서 경험하였던 비인간적인 노동의 현실에 마주하여 인간의 문명에 대하여 고심하였던 대표적인 기독교윤리학자이다. 니버의 시대에 문명의 위기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문명의 위기와 내용은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질문은 같다고 본다. 산업화와 비인간화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그렸던 니버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관하여 깊이 탐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세계-내 문제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기독교의 공공신학적 기반을 위한 예언자적인 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니버의 정치 신학적인 이론들이 현대 문명의 운명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비전과 책임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라인홀드 니버, 문명, 권력, 기독교 공동체, 공공 신학

I. 서론: 문제 제기

인류의 문명이 코로나19의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면 과연일까? 인간이 일상으로 여겼던 노말(normal)의 멈춤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의 여파는 국내와 정치 경제를 막론하고 쓰나미처럼 지구 공동체를 휩쓸고 있다. 가벼운 독감 정도로 만만하게 여겼던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원인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서양 간 책임 공방으로 신냉전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대륙의 단결을 선포하였던 유럽연합(EU)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경봉쇄에 돌입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운 장밋빛 미래의 약속은 코로나19의 백신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간다.

신학계에서는 코로나19의 접촉성 전염병의 특성상 모임을 자제해야 해서 전통적인 예배의 대책 마련에 부산하고, 낯선 온라인 예배의 콘텐츠 개발 등으로 분주한 형국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종교활동의 제약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신학과 교회 현장을 망라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위와 같은 상황이 제기하는 문제를 문명론의 차원에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신학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니버는 1,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보았으며, 디트로이트에서 경험하였던 비인간적인 노동의 현실에 마주하여 인간의 문명에 대하여 고심하였던 대표적인 기독교윤리학자이다. 니버의 시대에 문명의 위기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문명의 위기와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질문은 같다고 본다. 그것은 산업화와 비인간화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그렸던 니버의 이상(ideal)이 현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독교학계에 니버의 이론은 주로 정치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탐구되었는데, 필자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주제는 니버가 이해하였던 20세기 문명론의 틀에서 인간이 집착하는 권력의 속성과 이에 관여하는 인간,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사명에 관한 것이다. 니버는 산업 문명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 안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책임 윤리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밝히었다. 바라기는 코로나19 시대에 니버의 통찰력이 우리가 겪는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문명과 권력

니버의 문명에 대한 관점은 낭만주의적이지 않으며 정치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매우 비판적이다. 니버는 근대의 문명이 중세기의 기사도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기사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다는 가치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용맹의 자부심”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온다는 허세”로 “걱정이 많은 귀부인들”을 도왔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마찬가지로 근대의 산업 문명 또한 “개인주의와 역사,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기독교적 이상”과 “독특한 부르주아 개념”을 적당히 합친 것이라고 비판한다.¹⁾ 이는 산업 문명의 이면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개인주의와 부의 독점을 추구하는 유산계급, 그리고

1)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2. 이하 니버의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는 pdf 파일이기에 페이지 명기는 pdf 파일에 있는 순서를 따랐음을 밝힌다. religion-online.org,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American%20History.pdf> (2020년 6월 29일 접속).

이하 니버의 주요 저서,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를 인용할 때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원본을 통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URL=<https://archive.org/search.php?query=Reinhold%20Niebuhr> (2020년 6월 29일 접속). 참고로 니버의 주요 저서 중 위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추가 자료들은 별도로 인용을 표기함을 밝힌다.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정신이 섞인 막스 베버(Max Weber)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²⁾ 니버의 문명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니버 시대의 기술 문명의 특징으로 산업 문명에 관하여, 그리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권력의 확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산업 문명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는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염두에 둔 문명의 특징은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 문명이다.³⁾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시대에는 인간이 자연의 수혜에 따라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지만, 현대 산업 문명에서는 주로 기계에 의하여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러한 축적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통적인 사회에 비하여 단지 기계문명에 부수적인 동반자가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니버는 지적한다.⁴⁾ 이런 맥락에서 니버가 본 당시 교회의 모습은 경제적 부를 탐하는 미국의 문명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만연한 인간의 탐욕과 부도덕에 대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교회가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⁵⁾

니버의 시대는 주로 2차 산업혁명의 절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체제에 인간은 기계에 의하여 그 정체성의 위기에 있었다. 니버가 본 것은 인간이 기계의 한 부품처럼 비인간화의 현실에 처하고, 권력 또한 중상주의를 통한 부와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여 인간의 운명은 더 암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니버는 문명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그 내면에 작동하는 인간의 권력에 의한 의지와 그 폐해를 고발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니버가 본 산업 문명의 특징은 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대의 “상업과 산업의 확장”⁶⁾이며, 나아가 과학은 그러한 문명의 발전에 속도를 더하게 한다.

2) 이 관점은 필자의 해석이다.

3)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t, Clark and Colby, 1929), 93. 니버는 1924년 니버 교구의 윌리엄스(Williams) 감독의 죽음을 애도하며 당시 디트로이트(Detroit)에서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4) 위의 책, 173.

5) 위의 책, 111-12. 니버는 당시 많은 교회가 주장하는 ‘번영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관점을 취하였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6)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5-6.

PDF by ANGEL (realnost-2005@yandex.ru),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 (2020년 6월 29일 접속).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서 따라서 20세기의 문명은 “야만적인 자본주의 문명”으로 정의된다.⁷⁾ 이러한 문명 속에서 인간은 미래를 꿈꾸는 청사진을 그릴 수 없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제도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기주의는 언제나 파괴적이다. 죄의 삶은 사망이다. 자체의 정의와 그리고 서로 상충하는 국가의 이해관계 충돌을 통한 현대 문명의 파멸은 단지 세상에서 죄의 파괴성의 한 면이나 한 양상을 보여준다.⁸⁾

둘째, 니버는 문명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당시 권력에 집착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비판하며,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정책을 강하게 고발하고 있다. 니버는 영국의 인도 식민지정책이나 일본 중국과의 분쟁을 보면서, 국제 문명에 제국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간파하였다.⁹⁾ 니버는 자본주의 문명과 제국주의 문명을 같은 기조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문명 안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니버는 제국주의는 그 동기를 숨기고 겉으로 “인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뒤로는 야욕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고 분석하였다.¹¹⁾ 니버는 평화의 이름으로 제국주의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감추고 역사를 지배하였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로마제국, 국제연맹, 상업주의, 산업주의, 공산주의 등이 그러한 예라고 비판한다.¹²⁾ 이러한 흐름은 인간의 욕망을 숨기고 그 유한성의 한계를 잇는 악의 소산이며, 제국주의적이고 악마적인 기만임을 니버는 비판한다.¹³⁾

제국주의적인 특징은 사회적인 평화와 정의를 강조하다가 권력을 사용하

7) 위의 책, 9. 니버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배경 이면에는 자유 부르주아의 개념이 환영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니버는 이성의 시대(Age of Reason)나, 고두윈(Godwin), 디테로(Diderot), 루소(Rousseau), 아담 스미스(Adam Smith), 윌슨(Wilson)의 베르사유 조약(the treaty of Versailles), 그리고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류의 배경을 가진 정치적 관점은 허상이라고 비판한다.

8) 위의 책, 23.

9) 위의 책, 34.

10) 위의 책, 45-46.

11)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105. 니버의 비판은 베르사유 조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 중에 제국주의의 속성에 대하여 비판한다.

1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34.

13) 위의 책, 35. 니버는 어거스틴 전통의 기독교나 당시의 근대 문명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유한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의 배경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기 위하여 그 평화와 정의를 파괴하는데, 사회의 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권력을 제공한 대가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국경을 넘어 제국주의적 욕망을 확장하는 데에 자기 동료들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것은 “교만의 사회적 결과”이며, “부정의의 필연적인 결과는 자기파괴”로 끝나게 된다고 니버는 지적한다.¹⁴⁾

“생존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의지가 권력을 향한 제국적 의지”로 점철된 인간의 욕망은 유한성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 헛된 야망을 성취하려고 한다.¹⁵⁾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충돌은 점점 내적인 갈등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국가로 더 큰 사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¹⁶⁾ 아울러 개인과 그룹의 욕망은 권력투쟁과 다름이 없는 “생의 의지”가 “권력의 의지”로 변질하면서 점차 극대화된다.¹⁷⁾

셋째, 문명의 특징으로 특히 국가의 제한적인 역할에 대하여 니버는 강조한다. 니버가 국가에 대하여 강조하는 부분은 국가의 제도적인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형성하는 권력 집단의 속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권력을 신장하는 현실정치에 대한 것이다. 니버의 관점에서 근대문명의 치명적인 약점은 온전하지 못한 인간과 국가에 권력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한다.¹⁸⁾ 니버는 정치에서 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정치가 자연적 상태에 있는 경우 발생한다고 본 로크와 달리, 정치에서의 위기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연관된 것이며, 위기는 인간의 죄와 연관된다고 강조하며, 마치 정부와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여 줄 것처럼 여겨 “정부가 죄에 대한 방책”이라고 본 로크의 입장을 비판한다.¹⁹⁾

니버는 국가 정부가 하여야 할 책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사려 깊은 권력에 의하여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며, 그리고 “정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정의는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무가 뒤따른다고 주장한다.²⁰⁾ 정의는 시민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질서가 아니며, “생동력이 있는

14)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203.

15)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44.

16)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49.

17) 위의 책, 18.

18)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69-70.

19)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108.

20)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46.

공동체의 사회적 조화는 도덕과 법의 도덕적 개념과 그리고 공동체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힘과 생기의 상호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니버는 강조한다.²¹⁾

니버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에 그런 정의관이 모자랐음을 모두 비판하는데, 공산주의는 정의를 앞세워 독재를 정당화하는 그릇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²²⁾ 니버는 미국을 위시하는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원자폭탄의 사용이야말로 중앙집권적인 권력에 그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여, 그 자체가 “제국주의적”적 발로였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의의 기준”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문명의 위기에 대하여 염려한다.²³⁾

아울러 미국 사회에 공산주의의 이념이나 영향이 그나마 적었던 이유에 대하여 이데올로기로서 완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요약하는데, 그것은 각각 “자연 자원의 풍부함과 유럽 경제의 협력, 그리고 [미국] 기술의 효용성”이며, 이를 통하여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분쟁을 완화할 수 있었다.”라고 니버는 진단한다.²⁴⁾ 따라서 니버의 관점에서 미국의 부는 산업혁명의 선물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여명기에 누렸던 행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니버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니버가 제시하는 공동체는 당시의 근대 민주 국가론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나름 “경제와 권력의 독점”을 저지하여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그러한 과정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 정치적인 노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가 “내면적 종교와 도덕적” 요소들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고 평가한다.²⁵⁾ 물론 니버는 권력의 분산이 가능한 국제사회의 세력균형에 의문을 가지지만 만일 그러한 중재의 역할이 관료제와 같은 “기구(institution)”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구성체(organ)”가 된다면 권력의 분산에 효과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⁶⁾

21)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266.

22)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5.

23) 위의 책, 7.

24) 위의 책, 55.

25) 위의 책, 79.

26) 위의 책, 79.

필자는 지금까지 니버의 저작을 통하여 그가 문명에 대한 정의로서 산업 문명과 권력, 그리고 국가의 개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명은 역사의 산물이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주목하였던 니버는 근대화의 기치로 앞세운 계몽이나 합리성, 그리고 국가나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식민지주의를 이끌었던 제국주의적 방식이 여전히 20세기에도 작동하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앞세워 다투는 이데올로기도 불안정한 정신 사조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다음에서 20세기 문명 속에서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Ⅲ. 문명과 인간

필자는 앞 장에서 니버의 문명개념 가운데 부를 추구하는 산업 문명과 권력을 놓고 쟁투를 벌이는 제국주의, 그리고 정의의 실현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20세기 산업 문명 속에 있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니버의 입장을 조명하고자 한다. 문명과 연관된 니버의 인간관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인간의 유한성’, ‘책임적 자아의 요청’, 그리고 ‘역사의 주체성 회복’에 대한 것이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이제 다음에서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20세기 산업 문명 속에 인간은 주체적인 개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도덕적 혼란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니버의 신학에서 그려진다. 문명 안에서 인간은 계급 간의 충돌을 겪으며, “이성의 한계”와 “비양심”을 드러내게 된다.²⁷⁾ 아울러 20세기 산업 문명 안에서 “인간적 유한성으로부터 드러나는 부정직과 기만”의 문제에 직면하는 인간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²⁸⁾

산업 문명에서 인간은 형식적으로는 도덕을 준수해야 하는 흐름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자유주의적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과학의 객관적 합리성으로 나아간다.²⁹⁾ 그러나 니버는 근대의 문명이 “개인의 가치와 존

27)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46.

28) 위의 책, 49.

29) 위의 책, 50. 니버는 이러한 형식적 조건 뒤에는 계급의 이익이 배경에 있다고 지적한다.

엄성에 대한 개념”이 있었음에도, 종교적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 문화 속에서 이를 성취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³⁰⁾

니버는 근대문명의 다양한 학문이 비록 과학의 가치 중립적인 학문적 방법론처럼 역사와 인간의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아와 집단의 이성과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주제들에 대하여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³¹⁾ 니버는 역사에 대한 근대의 정신은 역사발전에 대하여 너무 단순하게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³²⁾

둘째, 20세기 문명 속에서 인간의 자아는 더욱 혼란 속에 처하게 된다. 20세기 문명 속에 정신적 기반의 역할을 해야 할 문화나 도덕, 또는 과학이나 산업 문명도 인간의 정체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더욱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니버는 바람직한 ‘자아’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자아의 성취” 뿐만이 아니라, 그 자아가 타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자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³³⁾

1) “자아는 다른 자아를 절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대면한다.” 2) “자아는 다른 자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며,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본다.” 3) “상호 도움을 주는 이상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대화 가운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만일 자신을 타자의 삶으로부터 파악하지 못하면, 자아는 성취할 수 없다.” 4) “자아는 타자를 자신의 확장에 있어서 한계로 인정한다.” 5) “[자아와 타자와의] 대화로 들어가 개체의 독특성은 관계에 있어서 각자를 매우 특별하게 여긴다. 비록 그 관

30)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39.

31) 위의 책, 49. 니버는 근대문명에서 TV의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유럽 국가의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대한 영향이 여과 없이 미국 사회에 흐르는 것에 대하여 염려했기 때문이다. 38.

32)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174.

33)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27-28. 이하 니버의 개념을 정리하며, 그의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는 pdf 파일이기에 페이지 명기는 pdf 파일에 있는 페이지 순서를 따랐음을 밝힌다. Religion-online,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C%20Reinhold%20-%20The%20Self%20and%20the%20Dramas%20of%20History.pdf> (2020년 6월 29일 접속).

계의 자연적인 조건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6) “자아가 삶의 고유의 중심일 때, 자아는 끊임없이 다른 자아들에 개방적이다.” 7) “이러한 [자아 간] 대화의 유형은 역사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규제받는다. 역사적인 조건들은 유형의 기반을 바꿀 수도 있지만, 대화에 있어서 고도의 개인적인 특성을 폐기하지는 못한다.”³⁴⁾

근대화의 과정은 니버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과 집단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기술 문명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중시하였던 공동체 정신보다는 개인주의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전통적인 사회의 공동체를 묶어 준 연대감보다 더 기술 문명으로 사회를 더욱더 결속하게 해준다고 진단한다.³⁵⁾ 이런 맥락에서 니버가 제시하는 ‘자아’론은 단지 연대를 넘어 크게 인간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상호 개방적이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의 경계를 긴장 가운데 지켜주며 고유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신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신을 타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돕는 위치에서 파악하는 니버의 인간론은 우리에게 감동마저 준다.

이러한 니버의 ‘자아’개념은 근대화의 과정 중에 드러나는 기술 문명이 형식적으로 인간 집단을 결속하는 힘이 있지만, 그 내용은 인간의 결속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기능의 집합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이를 간파하고 있는 니버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고유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니버의 자아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타자를 위한 개방성과 자아의 개체성이 유지되면서 공동체의 연대를 중시하는 니버의 관점은 20세기 문명에서 인간의 정체성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하여 준다고 본다.

셋째, 니버는 20세기 문명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개인이 자아의 회복에 이르게 될 때,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인간과 공동체의 이상에 대하여 강조한다. 니버는 서구의 문명에 있어서 역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로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하나는 르네상스가 이어받은 고전적인 역사적 순환론이

34) 위의 책, 27-28. 지금까지 니버의 ‘자아’개념을 문장에서 핵심만 간추려 정리하였으며 아라비아 숫자는 임의로 붙인 것임을 밝힌다.

35) 위의 책, 32.

고, 다른 하나는 헤겔(Hegel)식의 역사발전 개념이라고 보았다.³⁶⁾ 그러나 르네상스나 헤겔식의 역사적 발전의 개념에는 어느 정도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개념으로서, 또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과학 기술을 통한 진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핵무기의 개발로 말미암은 참상에서 보여주듯이, 그 기술을 지탱하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진보는 따라주지 못하였기에 역사의 발전은 환영의 개념이라고 비판한다.³⁷⁾ 니버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사용에 주저하지 않는다. 헤겔의 관념론에서 절대정신은 절대적인 무력의 소유를 통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며 이때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주어진 권력과 무력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니버는 그의 저서 “신앙과 역사(Faith and History)”에서 “인간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근대주의와 기독교, 그리고 고전적 개념”들에 대하여 탐구하며, 인간이 처한 운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는다.³⁸⁾ 니버는 서구 문명의 “인간 역사의 속성에 대한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접근”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하나는 자연의 역사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도모한 희망 고전의 관점이고, 둘째는 기독교 전통의 성서해석에 근거하여 자연과 구별하여 인간의 역사를 악과 선의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관점, 그리고 셋째, 근대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권력과 자유”를 통하여 인간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접근방식이 있다고 해석한다.³⁹⁾ 니버는 고전이나 근대의 문화는 “악과 유한성을 동일시”하여 “이성적 자유의 신장이 점진적으로 역사적인 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릇되게 믿는다”라고 비판한다.⁴⁰⁾

니버는 위의 역사관 중에서 ‘악과 선’의 신학적 사고를 통하여 인간 역사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근대적 사관과 기독교적 개념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여섯 개념의 역사관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그것은 각각 기독교의 계시관, 계시와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계시가 문화 안에 있다는 허더(Herder)의 관점, “점진적인 계시의 담지자로서의 역사”관을 주창한 리츨(Ritschl), 계시를 이성에 의하여 발견되는 “진리에 대한 기대”로 이해한 레싱

36) 위의 책, 43.

37) 위의 책, 43-44.

38)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13.

39) 위의 책, 14-15.

40) 위의 책, 47.

(Lessing), “그리스도를 역사 자체의 종교적 상징으로 간주한” 헤겔(Hegel), 그리고 “계시의 기록과 인간의 발전하는 종교적 의식의 이야기로 간주”하는 웰하우젠(Wellhausen)의 역사관이다.⁴¹⁾ 이 중에서 니버는 기독교의 계사론,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 의미로 역사적 사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통하여 역사의 의미를 탐구한다.

니버는 고전적 세계관의 시간 개념과 근대의 시간 개념의 차이는 근대의 시간 개념이 자명한 것으로 설명되는 것에 반하여, 고전에서 “시간은 불변의 형태로 구성된 세계와의 관계”에서 파악하여 시간과 역사를 동일시하게 되었는데, 이 양자의 공통점은 공히 시간과 역사의 관계를 단순하게 취급하였다고 니버는 비판하였다.⁴²⁾

니버는 역사와 시간은 자연적인 것도, 그렇다고 서로 동일시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³⁾ 니버는 성서의 히브리적 시간 개념은 순환론이 아니라 직선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경험과 합리적 이성을 통하여 역사적 발전이라는 시간 개념을 근대에서 가졌다는 점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⁴⁴⁾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인데, 역사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은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⁴⁵⁾ 더군다나 근대의 이성주의는 인간의 “자연적인 유한성과 육체적인 충동”을 악의 근원으로 이해하였으므로 이성의 능력을 신장함으로써 인간의 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또한 역사 내 인간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니버는 비판한다.⁴⁶⁾

역사와 시간의 문제를 과학적 이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인간 존재가 경험하는 실존적인 존재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없다. 니버는 인간의 책무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현대 인간의 노력은 교묘하게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세계를 심판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는 술책으로

41) 위의 책, 31. 니버는 소개하는 학자들의 역사관에 대한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별도의 인용을 하고 있지 않다.

42) 위의 책, 37.

43) 위의 책, 41.

44) 위의 책, 69.

45) 위의 책, 43. 니버는 베르그송(Bergson)의 관점에서 과학의 시간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데,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개념인 ‘durec’를 소개하고 있다. 니버는 자연주의나 베르그송 그리고 헤겔의 사관에 대하여 반대하는 관점을 취한다.

46) 위의 책, 89.

나타난다고 지적한다.⁴⁷⁾ 이와 같은 시간관과 연관된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연관성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거나 기대 이상의 인간 행위가 나타날 경우, 유한한 인간성의 한계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⁴⁸⁾ 결국, 권력의 속성에서 파악하였듯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인간을 신격화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현대 문명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처한 자아의 의미를 찾는 니버의 인간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기술 문명이 형식적으로는 인간 집단을 결속시켜 주지만, 실제로는 자아와 타자의 고유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하여,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책임적 자아”와 같은 이론이 전개되지 못하였지만,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주체성과 개체성, 그리고 타자성의 경계에서 자아의 고유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를 역사 내 존재로서 파악하고 근대의 이성주의나 순환론적 자연주의를 넘어 계시로 드러나는 히브리적인 직선적 역사관을 통하여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시간 내 존재인 인간을 파악하였던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와 역사 내 악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사관을 비판하여 역사와 악의 문제는 역사 안에서 이성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관 안에서 궁극적 의미가 드러난다는 니버의 관점도 매우 중시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이제 다음에서 20세기 문명에 대한 니버의 기독교 공동체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IV. 도덕적 책임과 기독교 공동체

지금까지 필자는 II 장에서 니버가 파악한 문명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III 장에서는 근대 문명 속에서 소외된 인간론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문명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대안이 무엇인지 니버의 사상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문명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니버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인

47) 위의 책, 99.

48) 위의 책, 100-101.

간 집단을 보지 않고, 인간의 책임, 덕의 신장,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역할에 관하여 그가 강조한 부분이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문명의 한계에 대한 니버의 대안은 도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근대의 자연주의(Modern naturalism)가 궁극적인 이상을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시도하는 자세는 결국 범신론의 윤리관과 다름이 없다고 니버는 파악한다.⁴⁹⁾ 범신론은 세계 내 인간의 책임에 관한 것을 다 신적 통로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윤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임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선과 악”의 차이나 “영원과 임시적”인 것의 차이, 그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⁵⁰⁾ 그렇게 되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회피되고, 자연적인 조건 또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니버는 자연주의 신학이나 이성적 종교의 한계를 지적한다.⁵¹⁾

니버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어거스틴과 루터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전적 타락의 개념은 윤리적인 책임의 문제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치 신조문(Formulary of Concord)”에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루터의 이론은 인간의 책임이 간과된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칼빈(Calvin)이 “이성의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여 “자기-초월”이나 “세상을 초월하여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의 개념을 니버는 선호한다.⁵²⁾

니버는 ‘인간의 죄’ 개념이 성립하려면, 악과 이에 뒤따르는 타락과 같은 설명으로는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인간에게 자유가 있을 때, 죄도 가능하게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⁵³⁾ 이러한 니버의 관점은 그가 신정통주의의 관점에서 있으면서, 문자 주의나 교조주의, 그리고 교권주의의 한계를 넘어 인간 의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하는데, 이는 인간의 책임과 덕의 윤리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49)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27. 니버는 합리주의적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우주론적(acosmic)” 범신론이라고 비판한다.

50) 위의 책, 27.

51) 위의 책, 27-28. 니버는 자연주의, 범신론,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를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다.

52) 위의 책, 35. 니버가 이러한 해석을 하는 배경으로 “N. P. Williams, *The Ideas of the Fall and of Original Sin*, 428.”을 인용하고 있다. 니버는 ‘신인 협조설’에 대하여 동의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53) 위의 책, 35.

둘째, 니버는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통한 인간의 책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며, 동시에 그 책임을 신장하는 덕 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니버는 어거스틴 전통의 기독교나 근대문명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영과 자연, 이성과 충동”의 역설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어거스틴 전통의 기독교는 “이성(reason)과 충동(impulse)의 분명한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근대문명은 “이성 안에서 부적격의 근거”와 “충동 안에서 모든 악의 근거”를 유추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⁵⁴⁾ 어거스틴 전통에서 “인간의 악행은 인간의 유한성이며”, 인간의 유한성은 인간 이성과 인간적 충동의 “불안전”에 근거하는 것이지, 전적인 타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니버는 이해한다.⁵⁵⁾

유한한 인간은 일종의 정신적 무정부 상태가 되어 유한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존재의 중심이 되려고 한다고 니버는 해석한다.⁵⁶⁾ 따라서 어거스틴 전통의 기독교는 인간의 유한성과 유한한 인간이 전능한 신처럼 가장하는 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덕을 신장할 수 있는 이성을 무시하고 “이성의 시대와 근대문명의 거부”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니버는 보고 있다.⁵⁷⁾ 이러한 기독교 전통은 근본주의와 정통주의는 교조주의로 자유주의는 교화와 같은 도덕적 합리성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니버의 비판이다.

니버는 인간 이성의 올바른 교화와 신장을 통한 ‘정의(justice)’에 대하여 관심을 주목한다. 니버는 “근대와 스토익, 그리고 자연법의 가톨릭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정의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원리는 평등의 원리이다. … 평등은 사랑과 정의의 중간 위치에 있다.”라고 그 의의에 대하여 인정한다.⁵⁸⁾ 그러나 “문명과 연관된 사안들을 다루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사랑의 원리가 유효하도록 해야겠지만, 사회는 너무 잔인하여 기독교의 원리는 그 원리 안에 갇힌 누룩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⁵⁹⁾라고 지적한다. 유럽의 역사를 이끈 축이 되었던 르네상스는 일종의 “영적 운동”으로서 “인간 존재의 무

54) 위의 책, 35.

55) 위의 책, 35.

56) 위의 책, 35.

57) 위의 책, 35.

58)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89.

59)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224.

한한 가능성에 대한 놀라운 확증”이라고 니버는 정의한다.⁶⁰⁾ 그러나 발전(progress)을 강조하는 르네상스와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역사의관의 차이는 르네상스에는 은총이 없는 인간 이성의 진보를 다루고 있으며, 르네상스가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역사의 의미로서 중시하는 점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다고 니버는 지적한다.⁶¹⁾

셋째, 20세기 문명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대안은 니버에게 성서에서 제시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예언적인 히브리 종교는 국가가 인간에게 삶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헛된 약속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맞선다.⁶²⁾ 니버는 히브리 종교가 국가주의, 민족주의(nationalism)를 처음으로 극복하는 “민족적 일치”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⁶³⁾ 니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과 심판이 이스라엘의 일치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파악하는데, 이는 현대 문명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됨을 니버는 제시하고 있다.⁶⁴⁾

지금까지 필자는 이 장에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회피되지 않는 니버의 공동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책임적 자아를 통한 덕의 윤리에 대한 강조와 자유의지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니버의 신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의 유한한 이성과 충동의 차이점을 예리하게 구별하여 인간 존재가 충동성에 제한되지 않고, 유한한 이성에 대한 각성과 반성이 있으면, 인간에게도 일종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니버의 신학은 정적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지게 하지 않는 건강한 신학적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유한성을 파악하고 이성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힘을 통제하면 충동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보다 발전적인 공동체 상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코로나19 시대의 문명에 바람직한 공동체 윤리가 무엇인지 니버의 신학을 통하여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60)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66.

61) 위의 책, 171-73.

62)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118. 니버는 역사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전권에 관한 성서 인용에서는 제2 이사야, 아모스 서의 예도 들고 있다. 117-18.

63) 위의 책, 118.

64) 위의 책, 118.

V. 결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윤리

근대화를 통한 계몽주의의 과학적 이성이 인간의 문명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정교의 분리로 전통적인 기독교 사관은 사적인 영역으로 점점 제한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욕망은 열강을 중심으로 세계화의 기치 아래 상품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정작 고유한 인간의 가치와 자유는 세계화에서 밀려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을 앞세운 인간의 미래 문명에 대한 부푼 기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과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 시점에 과연 인간 공동체의 문명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사실 현대 문명에서 누리는 서구의 발전은 오랜 식민지 전쟁을 통한 약소국의 물적 인적 자원을 빼앗고 이루어진 결과이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국제간의 분쟁을 해결할 UN이 등장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였지만, 세계 곳곳의 국경분쟁에 개입하여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지구촌 구석을 전전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바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난민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문명이다. 사실 코로나19도 인간의 과도한 소비 문명이 그 원인이었다고 하면 과언일까? 동물의 부산물로 키워지는 가축들은 동종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미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소비 문명은 결국 인간과 동물 간의 먹이사슬의 고리마저 무너지게 하였다. 과도한 에너지의 소비는 오존층을 무너뜨리고 환경오염은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지구 공동체를 몰아가고 있다.

인간의 문명에 책임이 있는 인간과 집단은 권력의 욕망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는 분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책임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신 냉전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대륙의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동단결을 주장하였던 EU도 막상 코로나19의 대처를 놓고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백신 치료에 어떤 국가가 먼저 혜택을 받을지에 대하여 열강은 그 오랜 구습인 제국주의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백신의 기술과 독점을 위하여 과학의 의료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약값으로 소비하는 중상주의로 변질하고 있다. 전 지구를 질병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헤쳐나가기 위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이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함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 환영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핵전쟁과 산업화의 비인간화를 본 니버의 문명론은 21세기 코로나19가 드러낸 현대 문명의 실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인간과 집단의 욕망은 니버가 신학적 인간론에서 밝히는 인간의 악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니버는 산업 문명 속에서 인간 개체의 고유성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지만, 인간의 의미는 궁극적 의미 물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보았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인간의 교만은 신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며, 오히려 역사의 다양한 조건들을 핑계 삼아 끊임없이 자신과 집단의 정체를 숨기려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는 어떤 이들에게는 문명의 위기가 아니라, 자신과 집단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숨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겉으로는 체제의 위기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집단을 위한 권력 독점을 탐하고, 정의의 배분을 외치면서 자기 집단 내부의 분배에만 적용하고, 평화를 외치면서 인종과 성을 차별화하고, 그리고 이성의 계몽을 외치면서 권위와 교조적인 고압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니버의 문명론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중시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예언자적인 지평을 열어준다고 본다. 권력의 허구와 집단의 욕망, 자신의 이기심의 감추려는 합리성, 악, 그리고 악은 역사적 조건에 주어진 필연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는 인간의 이성은 이러한 우연적 조건에 함몰되지 않고 신앙을 통하여 미래로 나아간다. 인간이 만일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니버의 문명론은 바로 그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세기의 실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19는 단지 수많은 역사적 조건들 속에서 인간의 무엇이지 깨닫게 하는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인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 그리고 자기 청결을 중시하는 현 문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위기를 겪고 있다. 그것은 단지 집합의 제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추적하는 과학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은 신앙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니버가 그린 초월적 신앙은 과학을 통하여 제시되지 않는다. 인간의 언어와 합리적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 실재이신 하나님은 과학을 통하여 발견되지 않는다. 세속 문화와의 거리 두기와 영적 정화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

는 더욱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변증하는 신학의 사명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니버가 소망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인류문명이 상실하여 가는 공동체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Niebuhr, Reinhold.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 _____.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5.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6.
- _____. *Beyond Traged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7.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Lond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Lond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 _____.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New Haven: The Hazen Pamphlet, 1945.
- _____.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 _____.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 _____.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 religion-online.org,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American%20History.pdf> [2020년 6월 29일 접속].
-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C%20Reinhold%20-%20The%20Self%20and%20the%20Dramas%20of%20History.pdf> [2020년 6월 29일 접속].
- PDF by ANGEL (realnost-2005@yandex.ru),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

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
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
[2020년 6월 29일 접속].

<Abstract>

The Fate of Modern Civilization and Reinhold Niebuhr's Thought on Civilization

Yoo, Kyoung-Dong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outh Korea

Is it an exaggeration to claim that the human civilization is standing on trial due to the issues of COVID-19? Perhaps we can say that it is fortunate if we examine ourselves through this situation as the 'normal,' which humans regarded as daily lives, has stoppe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s rampaging across the global communities like a tsunami regardless of borders, politics, and the economy. COVID-19, which was first treated as the common flu, has now infected nearly 10 million people worldwide, causing 500,000 deaths, and the end is yet to be seen.

The US and China, are playing a blame game of the East and the West on the cause of COVID-19 and is entering the new cold war system, and the EU, which had once called for the union of the European nations, asserting nationalism, is closing their borders as if that calling had never happened. It is questionable as to, how helpful the rosy future promises offer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were in making vaccines for the COVID-19.

Until now, Niebuhr's theories were mostly researched from the political realism's viewpoint, but the sub-themes which the author will discuss in the paper are Niebuhr's understanding on the nature of the power, based on the framework 20th-century civilization theory, which humans become obsessed with it and relate to, and the mission of the Christian community. Niebuhr had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industrial civilizations and took a firm position regarding the desire for power that works within that system and the responsible ethics of the Christian community that can overcome it. Hopefully, Niebuhr's insights will act as a guide to overcoming the crisis of civilization that we experience in the age of COVID-19.

Keywords*

Reinhold Niebuhr, Civilization, Power, Christian Community, Public Theology

• 투고(접수)일 : 2020. 6. 30 • 심사(수정)일 : 2020. 7. 22 • 게재확정일 : 2020. 7. 24